

책으로 세상을 읽다

비난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비난의 역설』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본 경험
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비난은 듣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다. 정도가 심하
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파괴력
이 크다. 집중포화와 같은 비난에 못 이
겨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매체
를 통해 많이 봐왔다. 또 개인뿐만 아니
라 특정 집단이 어떤 세력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비난을 받기도 한다. 주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난의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비난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
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비난이 없는 사

회가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아
닐까 그려보게 된다. 그러나 항상 남들과
는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 있기 마련. 모두가 싫어하는 ‘비난’의
순기능에 대해서 사유한 학자가 있다. 영
국 바스대학교 명예 교수 스티븐 파인먼
이다. 그는 조직 행동 분야 전문가답게
비난이 인간 사회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했고, 이를 <비
난의 역설>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책 제
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저자는 비난이
흥미로운 역설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모
두가 익히 경험한 뒤 틀리고 파괴적인 속
성이 있는 한편,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
여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비난의 순기능은 무엇일
까? 미리 언급하자면 ‘비난이 도덕 규범
의 실천과 법적 권위를 지탱’한다는 것이
다. 해당 인용구는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쉽게 풀이해서 사람들의 잘못과
 불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
을 말한다. 저자는 특히 권력을 가진 기



『비난의 역설』, 스티븐 파인먼 지음 / 출처 : 교보문고



비난은 당하는 사람에게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

업과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지녔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왜 비난이 나쁘다고 하는가?



타인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싶은 사람의 심리

책의 전반부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난이 작동하는 원리와 무분별한 비난으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사례, 비난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언급한다. 말 그대로 비난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비난의 온갖 안 좋은 형상들을 먼저 보여주는 듯하다.

저자는 비난이 오랫동안 인간 사회에서 존재해 온 것은 ‘자기 보호’라는 심리적인 안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 혹은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난이 그 역할을 한다. 이를 ‘희생양 만들기’ 혹은 ‘쓰레기 내버리기’라고 저자는 표현했다. 말 그대로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비난의 짐을 남에게 내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제는 직장과 같은 성과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조직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오류, 그 밖에 여러 잘못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피하고자 희생양을 만들게 된다. 저자는 특히 하급 관리자나, 현장 직원처럼 저항하기 어려

운 위치에 놓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권력과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는 조직일수록 비난 문화가 더 팽배하다는 것이다.

개인 간에 벌어지는 희생양 만들기가 집단 단위에서 일어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과거 기근이나 병충해, 전염병, 전쟁 등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희생 집단이 만들어졌다. 시민 개개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비난을 돌릴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저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세 마녀사냥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들었다. 둘 다 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찍힌 집단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보내야 했다.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인 비난은 언론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언론은 실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건도 공포를 과장하여 사람들에게 도덕적 패닉을 일으킨다. 도덕적 패닉은 대중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비난의 화살이 사건의 당사자들로 향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먼저 대상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섞어 분

노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악마화’라고 표현했다. 악마화는 전형적인 유형을 만들고 그 범주 안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집단적 희생양을 만들기 쉽다. 더욱이 깊이 있는 설명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외면한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저자는 도덕적 패닉이 언론이 지속적으로 의제 설정 주도권을 쥐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과거 언론이 난민과 무슬림에 대해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던 행태를 사례로 열거했다. 물론 위의 두 집단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언론이 그들의 부정적인 면만 보도하고 긍정적인 모습은 가리면서 균형감을 잃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필자는 저자가 말한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비난이 사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본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시한 채,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만 지목하여 분노를 쏟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재난의 재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돌이켜보자.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던 개인 및 집단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이 잘못된 점도 분명 있다. 다만 비난의 정도가 과하지는 않았는지, 하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나치에 핍박받은 유대인들





기업과 정부는 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언론에 의해 ‘악마화’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비난이 권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다!

책은 1부에서 비난의 해악을 설명하는데만 약 100쪽가량의 많은 분량(전체 약 260쪽)을 할애한다. 읽다 보면 비난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설파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2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가 시작된다. 이 글 초반에 ‘잘못과 불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비난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바 있다. 비난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이다. 우리는 정당한 비난을 들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피하고자 사회의 도덕 규범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주요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를 지목한다. 저자가 굳이 이 두 기관을 지목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불의를 저지할 때 그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이는 비난이 권력을 쥔 자들에게 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활동,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기업의 불의에 맞서 비난하는 활동 및 단체에 주목한다. ‘문화 방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문화 전달의 기본 단위인 ‘밈(meme)’을 활용해 기업의 광고와 로고를 비틀어 조롱의 메시지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스타벅스 커피를 ‘스틸벅스 커피’(돈을 흡치는 커피라는 뜻)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다. 저자는 기업을 저격해 문화 방해 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를 소개한다.

비정부기구 역시 기업을 향한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주로 환경, 노동 단체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며, 현장에 나가 직접 행동을 벌이기도 한다. 1990년대 나이키의 노동 착취 실태를 드러낸 비정부기구 ‘코프워치’는 유명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성을 띤다. 그러나 일개 기업

보다도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잘못된 정치를 하면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스피드터와 같은 전문가를 활용해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항상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명 책임이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확실한 비난과 제재를 가해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설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몰락한 정치인의 사례들을 일러준다.

그런데 겉으로는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짓 사과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저자는 정치인들이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듯하나, 언어와 표현을 교묘히 활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명 ‘비사과성 사과’다. 이는 사과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지지기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정치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설명 책임의 실태를 꿰뚫어 본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대목이

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의 메시지는 상당한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언뜻 들으면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우리가 이들이 하는 말을 항상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다.

비난을 넘어 회복과 치유를 향해

비난의 순기능에 관해 한참을 역설하던 저자는 3부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꺼내 든다. 이는 2부에서 논의했던 비난의 순기능적 측면과도 약간 결이 다르다. 비난의 순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한다.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과와 용서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비난과 응보’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사법체계와는 대조적이다.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성에 의존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나, 책은 실제로 회복적 사법을 활용해 효과를 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회복적 사법에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할 때는 어찌하는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저자도 이를 알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저자는 회복적 사법이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



회복적 사법에서 용서와 화해는 필수적이다

자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를 주장한 것이었다. 비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책을 쓴 저자가 왜 갑자기 회복적 사법을 이야기했을까? 독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난이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어서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비난이라 할지라도 표현에 따라 강도가 지나칠 수 있으며, 이를 들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왜곡되고 남용되기 쉬운 게 바로 비난이다. 그래서 저자는 비난하는 것도 좋으나 그보다 서로가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책의 내용을 크게 세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비난의 해악,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인 비난의 순기능, 마지막으로 비난을 초월한 회복적 사법이다. 책의 제목은 ‘비난의 역설’이기 때문에 3부의 내용은 번외 편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금 더 건강한 비난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자는 점에서는 맥이 통한다.

비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팽배한 사회에서 비난이 가진 긍정적 측면을 일깨워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비난을 조금 더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이 비난의 역설에 관해 책 전체에 걸쳐 촘촘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서술해 주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펼쳐보니 비난에 관한 풍부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비난의 여러 속성을 설명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읽는 재미는 더할 수 있었으나, 책의 논리에 빠져들며 몰입해 읽기는 조금 아쉬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논리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한 방향성과 조금 달랐을 뿐이다.

‘비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난은 잘못과 불의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이다. 선악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비난의 검을 휘두르게 되기를 바란다. 📖

그림 출처 : Pexels, 위키미디어